

# 예술기록물 분류체계 유형에 따른 이용가능성 모델 연구

## A Usability Model for Arts Archives Based on Types of Classification Systems

윤소정(Sojeong Yoon)

E-mail: mllesojeong@naver.com

한국의국어대학교 정보기록학과 박사



논문접수 2026-04-13  
최초심사 2026-04-16  
게재확정 2026-05-11

ORCID

Sojeong Yoon   
<https://orcid.org/0009-0008-1289-2313>

© 한국기록관리학회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초 록

본 연구는 예술기록물 분류체계의 유형이 이용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이용가능성 유형화 모델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으로 아르코예술기록원(ARCO)·미국미술아카이브(AAA)·프랑스국립도서관 공연예술부(BnF)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류체계·검색도구·이용자 서비스의 3축을 기준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3기관의 분류체계는 수집 범위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구성 논리를 가진다. 이를 바탕으로 분류 논리의 일관성·계층 구조의 확립·3축 연계의 통합성의 3가지 요인을 도출하였다. 이를 적용한 결과 이용가능성의 유형은 원칙 분산형·계층 미확립형·사건 맥락 중심 일관형·생산자 중심 일관형의 4가지로 구분된다. Finding Aid의 존재 여부가 유형별 이용가능성 실현 수준의 핵심 분기점임을 확인하였다.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classification system typologies in arts archives affect usability and, on that basis, to propose a typological model of usability. For the research methodology, three institutions were selected as case study subjects: ARKO Arts Archive (ARKO), the Archives of American Art (AAA), and the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BnF). The compa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along three axes: classification systems, finding aids, and user services.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classification systems of these institutions operate according to distinct organizational logics reflecting particular characteristics of their respective collections. Based on this, three structural factors were identified: consistency of classification logic, establishment of a hierarchical structure, and the level of integration across the three axes.

Applying these factors, four usability typologies were identified: the Inconsistent Principles Type, the Underdeveloped Hierarchy Type, the Event-Centered Consistent Type, and the Creator-Centered Consistent Type. The findings also show that the presence of finding aids is a key factor determining the level of usability realized within each typology.

**Keywords:** 예술기록물, 이용가능성, 분류체계, Finding Aid, 이용가능성 모델  
Arts archives, usability, classification system, finding aid, usability model

## 1. 서론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문화 디지털 혁신 시행계획」에서 문화 자원의 디지털화와 디지털 기반 K-컬처 확산을 국가 전략으로 제시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24). 이러한 정책에 따라 예술기록물의 디지털화 온라인 공개와 활용 확대가 주요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는 예술기록 전문기관의 플랫폼을 통해 기록을 탐색하고 활용하는 양상은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선행연구 박정연, 김수정(2025)에 따르면, 무용 전공자 86.7%가 예술 전문기관이 아닌 유튜브를 통해 디지털 기록을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술기록물의 디지털화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이용자는 전문기관의 플랫폼보다 외부 플랫폼을 통해 기록에 접근하고 활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예술기록물의 이용 문제가 디지털화 여부나 기술적 접근만이 아니라, 기록이 어떠한 방식으로 조직되고 제시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Yakel과 Torres(2003)는 이용자가 기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록의 탐색·이해·활용이라는 과정 전체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 과정이 곧 이용가능성의 실현임을 논증하였다. 즉 이용가능성은 기록이 존재하거나 열람이 허용된다는 사실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이용자가 기록을 찾고, 그 맥락을 이해하며,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구조적으로 갖추어져 있을 때 비로소 실현된다. 이 조건은 분류체계의 설계 논리에서 출발한다. 분류체계는 단순한 목록 체계가 아니라 기록의 맥락을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해석 구조이며, 분류체계가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이용자가 기록을 이해하는 방식이 구조적으로 형성된다(Yakel, 2003). 분류체계가 일관되게 적용될 때 계층 구조가 확립되고, 이 구조를 기반으로 Finding Aid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검색도구가 기록의 맥락을 이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Finding Aid가 분류체계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핵심 매개이며, 이것이 부재하거나 충분히 기능하지 않을 경우, 검색도구는 오히려 이용자에게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Yakel, 2004). 기록은 구조화되지 않으면 탐색할 수 없고, 탐색 되지 않으면 이해될 수 없으며, 이해되지 않으면 활용으로 이어질 수 없다. 이처럼 분류체계·검색도구·이용자 서비스는 이용가능성 형성의 필수적인 순차적 연결 구조를 이룬다. 이 연결이 단절될 경우, 이용가능성은 제한된 수준에 머물게 된다.

예술기록물은 다층적 특수성으로 인해 분류체계 설계 방식이 이용가능성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예술기록물 분류체계가 이용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흡하며, 국내·외 예술기록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한 비교 연구 또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김지아, 2022). 이에 본 연구는 예술기록의 이용가능성을 결정하는 구조적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유형화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유형화 모델은 동질적 사례 간 비교가 아니라 이질적 사례 간 구조 비교를 통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예술기록 전문기관이라는 공통적 기능을 공유하되, 국가적 맥락과 소속 체계에서 상이한 3기관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기관 모두 예술기록을 수집·관리하는 전문기관이라는 공통 기반을 공유하면서도 수집 범위, 분류 원칙, 운영 체계에서 서로 다른 유형을 대표한다. 이러한 차이는 이용가능성 구현 방식의 구조적 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비교·분석은 유사성 확인 아니라 차이를 통한 구조적 설명을 목적으로 하며, 서로 다른 유형의 기관을 선정한 것은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른 방법론적 선택이다.

또한 3기관은 국가·소속·법적 위상에서 상이하므로 운영 양상의 차이를 분류 논리만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분석 기준을 분류체계·검색도구·이용자 서비스의 3축으로 한정하고 유형화 모델 도출 과정에서 기관별 맥락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수행한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와 비교 사례 연구를 병행하여 수행하며 분석 대상은 아르코예술기록원(이하 ARCO)·미국미술아카이브(이하 AAA)·프랑스국립도서관 공헌예술부(이하 BnF)이며 각 기관의 디지털 플랫폼과 공개 자료를 중심으로 분류체계·검색도구·이용자 서비스의 3축을 기준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설정한다.

- 연구 질문 1: 국내·외 예술기록물 분류체계는 어떠한 구성 논리와 구조를 가지는가?
- 연구 질문 2: 분류체계의 유형에 따라 검색도구·이용자 서비스와의 연계 방식에 어떻게 달라지는가?
- 연구 질문 3: 이용가능성 구현 방식은 어떠한 유형이며, 각 유형은 어떠한 구조적 특성이 있는가?

## 2. 이론적 고찰

### 2.1 이용가능성의 구조적 형성 과정

국제표준 ISO 15489에서 기록의 속성을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이용가능성으로 구분한다. 이용가능성은 기록의 위치를 확인하고 검색하고, 검색된 기록을 실제로 열람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한다. 또한 기록은 생산된 업무 활동과 관련성을 유지한 채 제시되어야 하며, 기록의 해석은 생산·사용 맥락을 설명하는 정보와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국가기술표준, 2021, KS X ISO 15489-1:2016). 이러한 정의는 이용가능성이 단순한 물리적 접근 개념이 아니라 기록의 구조와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지적 접근성(intellectual accessibility)으로 확장하여 이해할 수 있다(Pearce-Moses, 2005).

그러나 이용가능성은 단순히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용자는 기록에 접근하는 것만으로는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거나 활용할 수 없으며, 기록이 어떠한 맥락에서 생성되고 어떠한 구조로 조직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이용이 가능해진다. Yakel과 Torres(2003)는 기록 이용이 단순한 정보 탐색이 아니라 이용자의 지식, 탐색 전략, 아카이브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결합된 과정임을 논증하였다. 기록의 이용은 탐색·이해·활용의 단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적 과정이며, 이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갖추어질 때 이용가능성은 실현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절에서는 이용가능성이 분류체계·검색도구·이용자 서비스의 연계 구조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고찰한다.

이용가능성은 단일 조건이나 기능이 아니라 기록의 조직·탐색·이해·활용이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구조적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기록을 조직하는 분류체계이며 탐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검색도구이며 활용을 지원하는 이용자 서비스의 연계를 통해 구체화할 수 있다. 이 구조적 형성 과정의 출발점은 분류체계이다. Bowker와 Star(1999)는 분류체계가 중립적 기술이 아니라 특정한 세계관을 반영하는 사회적 구조로서,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배제할 것인지를 결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인식과 접근 방식을 형성한다고 논증하였다. 이를 기록학에 적용하면, Yakel(2003)이 설명한 바와 같이 분류와 기술을 포함한 아카이브 재현은 기록의 맥락을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해석 구조로서 기능한다. 분류체계는 단순한 목록 체계가 아니라 이용자의 이해를 형성하는 구조적 장치이며, 분류되지 않은 기록은 발견되기 어렵고 발견되더라도 맥락 없이 해석되기 어렵다.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형성된 구조는 정리와 기술의 과정을 통해 구체화한다.

설문원(2012)은 정리가 출처주의와 원질서의 원칙에 따라 기록 집합의 내적 질서를 드러내는 과정임을 설명하였고, 조민지(2011)는 기록 기술이 단순히 내용을 설명하는 행위가 아니라 기록물을 전체 맥락 안에 위치시키고 기록 간 관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고 논의하였다. 이러한 정리와 기술은 통해 기록의 맥락과 관계가 이용자에게 가시화되며 기록을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이렇게 형성된 기록의 구조와 맥락은 이용자의 탐색 과정에서 직접 인식되기 어려우며, 이를 탐색 환경에서 구현하는 장치가 검색도구이다. 설문원(2010)은 검색도구를 출처와 원질서 원칙에 따른 집합적 기술의 결과물로 설명하였으며, Pearce-Moses(2005)도 검색도구를 자료의 물리적·지적 통제와 검색·이해를 돕는 기록물 기술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검색도구는 분류체계가 형성한 구조를 탐색 환경에서 구현하는 매개 장치로 작동한다.

특히 Finding Aid는 분류체계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핵심 매개체로서 기능한다. Yakel(2004)은 이용자들이 Finding

Aid의 계층 구조와 용어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 Finding Aid가 기록 접근을 돕는 매개가 아니라 오히려 탐색을 저해하는 장벽이 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상의 논의는 검색도구가 단순한 접근 수단이 아니라 이용가능성 형성 과정의 핵심 요소임을 보여준다.

이용자 서비스는 분류체계와 검색도구가 형성한 구조 위에서 기록의 맥락을 해석하고 활용을 지원하는 최종 단계이다. 분류체계와 검색도구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 위에서 이용자 서비스가 작동할 때, 이용자는 기록의 맥락을 바탕으로 연구·창작·교육 등 다양한 목적에 맞게 기록을 활용할 수 있다. 반대로 분류체계와 검색도구의 연계가 단절된 경우, 이용자 서비스는 안내 수준에 머물게 된다. 따라서 이용가능성이란 기록이 단순히 존재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보다, 기록이 조직·탐색·이해·활용되는 모든 과정에서 형성되는 개념이다. 이용가능성은 분류체계·검색도구·이용자 서비스가 결합된 구조적 형성 과정에서 실현되는 복합적 속성이며, 이 구조가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이용가능성의 구현 방식이 달라진다.

## 2.2 예술기록물의 특수성과 이용가능성의 구조적 조건

예술기록물은 공공기록물과 달리 생산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생성되기보다, 사후적 수집과 기록화 과정을 중심으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김지아, 2022). 공공기록물이 행정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산되고 일정한 맥락과 구조를 유지하는 반면, 예술기록은 창작 결과물과 과정 자료가 다양한 시점과 맥락 속에서 수집·구성되는 구조를 갖는다. 이러한 생성 구조의 차이는 기록의 조직 방식과 이용가능성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공공기록물은 생산 단계에서 형성된 안정적인 구조를 기반으로 분류체계를 통해 이용가능성을 일관되게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술기록물은 안정적인 구조가 사전에 형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분류체계 설계 방식이 이용가능성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기록관리 원칙과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기록관리 원칙은 출처주의와 원질서를 기반으로 하며,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2000)가 제시한 ISAD(G)에서도 이 원칙은 기록 맥락 보존의 핵심으로 명시되고 있다. 이 원칙은 기록이 생성된 맥락과 생산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기록의 의미를 보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예술기록물은 단일한 생산 주체나 고정된 업무 맥락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동일한 기록이 전시·공연·연구 등 다양한 맥락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된다. 또한 인물·단체·작품·기획 등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기록이 구성되기 때문에 단일 분류 논리로 전체 구조를 설명하기 어렵다. 이러한 특성은 전통적 분류체계가 전제하는 단일 출처와 고정된 질서 중심 구조와 충돌하는 조건을 형성하며, 결과적으로 기록의 조직 방식이 곧 이용가능성 형성 방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된다. 이러한 충돌은 예술기록물의 구체적인 구조적 특성에서 드러난다. <표 1>에서 예술기록물의 특수성을 매체·기록화·맥락·장르의 4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나타낸다.

<표 1> 예술기록물의 특수성과 기록관리적 의미

차원	특성	내용	기록관리적 의미
매체 차원	매체 다양성	- 악보, 영상, 신체 기록 등 다양한 매체 포함 - 오브제 및 창작도구 등 박물류 기록 포함	- 공공기록 메타데이터와 구별되는 형태별 기술 요소가 필요
기록화 차원	기록화 중심성	- 완성된 결과물뿐 아니라 창작과정, 리허설, 초고 등 과정 중심 자료를 포함 - 생산보다 수집과 기록화 행위가 중심이 되는 구조	- 창작과정 전반을 수집 대상으로 설정 - 생산자 유형에 따른 컬렉션 구성 원칙을 마련
맥락 차원	맥락 복잡성	- 동일 기록물이 전시·공연·연구 등 다양한 맥락에서 반복적으로 활용 - 인물, 주제, 기획, 단체 등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해석될 수 있음	- 출처 기반 계층 구조를 유지 - 기록 간 관계와 맥락을 기술 요소를 통해 구조적으로 표현
장르 차원	장르 복잡성	- 설치미술·퍼포먼스·미디어아트 등 장르 간 경계를 초월한 융복합 활동 증가	- 장르 특성을 반영한 분류 원칙 수립 - 해당 원칙은 컬렉션 전체에 일관되게 적용

첫째, 매체 차원에서는 악보·영상·이미지·신체 기록 등 다양한 형식이 공존하며 오브제와 같은 박물관 자료까지 포함된다. 둘째, 기록화 차원에서는 완성된 결과물뿐 아니라 창작과정·리허설·초고 등 과정 중심 자료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셋째, 맥락 차원에서는 동일 기록이 다양한 활용 맥락 속에서 반복적으로 재해석되며 단일한 맥락으로 고정되지 않는다. 넷째, 장르 차원에서는 설치미술·퍼포먼스·미디어아트 등 장르 간 경계가 모호한 융복합적 특성이 나타난다. 설문원(2021)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예술기록의 정리가 기록의 맥락을 확인·보존하고 집합적 기술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예술기록물이 다양한 속성을 가지며, 단일 분류 논리를 일관되게 적용하기 어려운 구조적 조건을 형성됨을 보여준다. 이러한 복잡성과 비정형성으로 인해 예술기록물에서는 분류체계의 일관성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 분류 논리가 일관되지 않을 경우, 이용자는 기록이 어떠한 기준으로 조직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없으며 탐색 경로를 예측하기 어려워진다. 이는 곧 기록의 맥락 이해를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이용가능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대로 수집 범위와 기록 특성에 부합하는 분류 논리가 일관되게 적용될 경우, 이용자는 안정적인 탐색 경로를 통해 기록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는 이용가능성 실현의 전제가 된다.

따라서 예술기록물의 이용가능성은 여러 분류 기준을 혼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수집 범위와 목적에 부합하는 일관된 분류 논리가 체계적으로 적용될 때 비로소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예술기록물에서의 분류체계는 단순한 관리 질서를 설정하는 도구가 아니라, 이용가능성을 형성하는 구조적 기반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구조적 조건은 분류체계의 역할을 재정의하도록 요구된다. 분류체계는 단일한 조직 원리를 기반으로 기록 간 관계를 일관되게 설정하는 구조로 작동해야 하며, 이 구조를 기반으로 검색도구와 이용자 서비스가 연계될 때 비로소 이용가능성이 실현된다. 검색도구는 분류체계가 형성한 구조를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탐색 경로로 구현하며, 이용자 서비스는 이러한 구조를 바탕으로 기록의 맥락을 해석하고 활용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김지아(2022)는 기록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구조와 맥락이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분류·정리·기술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예술기록물의 이용가능성은 분류체계·검색도구·이용자 서비스가 결합된 구조에서 형성되며, 이 구조가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이용가능성의 구현 방식이 달라진다.

예술기록물의 이용가능성은 기관별 분류 논리와 검색 구조, 이용자 서비스의 구성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로 구현된다. 이는 단순한 운영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이용가능성이 형성되는 구조의 차이를 의미한다. 따라서 예술기록물의 이용가능성은 분류체계가 검색도구·이용자 서비스와 어떻게 연계되는가를 중심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3기관의 분류체계와 이용가능성 구현 방식을 비교·분석한다.

### 3. 국내·외 예술기록물의 이용가능성 분석

본 장에서는 ARCO·AAA·BnF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기관은 예술기록을 전문적으로 수집·관리하는 기관이라는 공통점을 가지면서도, 수집 구조와 운영 체계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분류체계 유형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3기관은 수집 구조와 분류 논리가 서로 다른 유형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비교·분석의 대상으로 적합하다. 이러한 차이는 이용가능성 구현 방식의 구조적 차이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분석 조건으로 작용한다. 3기관의 선정 이유는 <표 2>와 같다.

<표 2> 비교 분석 대상 기관 선정

국가	기관명	수집 및 분류 구조 특징	선정 이유
한국	ARCO (아르코예술기록원)	- 복합 장르(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등) - 수집 기준 및 분류 원칙 혼재 - DA-Arts 플랫폼 기능별 분절 운영	- 분류 원칙의 혼재로 인해 일관된 분류 논리가 형성되지 않은 유형 - 플랫폼 분절 구조로 인해 분류체계와 검색 환경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은 구조 - 분류 논리의 비일관성과 플랫폼 구조가 이용가능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선정
미국	AAA (미국미술아카이브)	- 단일 장르(시각예술) - 창작자 기증 중심 수집 - 계층적 분류체계(컬렉션-시리즈- 하위시리즈-박스-폴더-아이템)	- 단일 장르와 창작자 중심 수집 구조 기반 - 일관된 계층적 분류 논리가 전체 체계에 적용된 유형 - 분류체계의 일관성이 이용가능성 구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선정
프랑스	BnF (프랑스국립도서관 공연예술부)	- 복합 장르(연극, 무용, 서커스 등) - 납본 중심 수집 구조 - 공연 사건 중심 계층 구조(풍-시리즈-도시-에-피에스) - 기능별 플랫폼 분산 운영	- 복합 장르 수집 구조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분류 논리 유지 - 다만 플랫폼 분산 운영으로 인해 분류체계·검색도구·이용자 서비스 간 연계 제한 - 분류체계의 일관성과 플랫폼 구조가 이용가능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선정

위의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3기관의 수집 구조와 분류 논리의 구성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ARCO는 다장르 수집과 분류 원칙의 혼재, 그리고 플랫폼의 분절 구조로 인해 일관된 분류 논리가 체계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조건을 가진다. 반면 AAA는 단일 장르와 창작자 중심 수집 구조를 기반으로 계층적 분류체계가 일관되게 적용된 유형이다. BnF는 다장르 수집 구조를 가지면서도 납본제도를 기반으로 공연 사건 중심의 분류 논리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다만 4개의 플랫폼이 분산되어 운영됨에 따라 분류체계·검색도구·이용자 서비스 간 연계가 제한되는 구조적 한계가 나타난다.

이처럼 3기관은 수집 구조와 분류 논리의 관계에서 서로 다른 유형을 보여주며, 특히 분류체계의 일관성 여부에 따라 이용가능성 형성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분류체계·검색도구·이용자 서비스의 3축을 중심으로 각 기관의 이용가능성 구현 방식을 분석한다.

### 3.1 아르코예술기록원

ARCO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속 기관으로,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예술기록 전문기관이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산하 자료실 개관한 이후, 자료관, 예술정보관(2005), 국립예술자료원(2010), 예술자료원(2014)을 거쳐 2019년부터 현재의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명칭 변화는 단순한 행정적 개편이 아니라, 자료 중심의 운영에서 기록의 생산 맥락과 증거성을 중시하는 기록기관으로 정체성이 전환되어 온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집 범위는 ‘국내·외 예술 관련 기록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수집 이후 기록물의 조직 과정에서는 수집기록물, 생산기록물, 디지털기록물 영역별로 출처주의, 사업 중심, 매체 유형 등 서로 다른 분류 원칙이 혼재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DA-Arts 플랫폼 내에서는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등 장르 기반 분류가 별도로 적용된다. 이처럼 분류 원칙이 영역별·플랫폼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구조를 보인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은 ARCO의 이용가능성 구현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절에서는 분류체계의 특성이 분류체계·검색도구·이용자 서비스 각 영역에서 이용가능성 구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단계적으로 분석한다.

#### 3.1.1 분류체계

ARCO의 분류체계는 생산기록물, 수집기록물, 디지털기록물, 일반자료의 4가지 유형을 상위 범주로 설정하

고 있다. 개편 이전의 플랫폼에서는 분류 구조가 이용자 화면에 직접 노출되었으나, 2026년 2월 플랫폼 개편 이후 검색 중심의 인터페이스로 전환되면서 이용자 화면에서는 분류체계를 간접적으로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분류체계가 기관 내부 구조로 유지되는 반면, 이용자 화면에서는 분류 구조의 직접 노출이 줄어들었음을 보여준다.

수집기록물 영역에서는 출처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기증자 컬렉션 중심으로 기록이 조직되며, 기증자가 유지하던 배열을 가능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관리된다. 이는 출처주의와 원질서 존중 원칙이 기록 조직의 기본 원리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플랫폼 개편 이후 해당 분류 구조는 이용자 화면에 직접 노출되지 않고, 검색 결과 화면 좌측 패널에서 필터 선택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생산기록물과 디지털기록물 분류체계는 기관 사업 중심과 매체 형태로 분류된다. 생산기록물은 구술채록과 공연영상화사업으로 구분되며, 각 항목 선택 시 별도의 플랫폼인 DA-Arts로 연결된다. 디지털기록물 역시 DA-Arts를 통해 제공되며, 기획컬렉션, 공연예술, 시각예술, 한국현대음악의 4개 상위 분류로 조직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분류체계 내에서는 장르, 인물, 주제, 기관 등 서로 다른 기준이 동일 플랫폼 내에서 혼재되어 나타난다. 특히 구술채록은 생산기록물 영역과 DA-Arts 기획컬렉션에 분산되어 확인되는데, 이는 해당 기록이 기관 주도 사업으로 생산됨과 동시에 디지털 매체를 통해 재구성·제공되는 이중적 성격에 기인한다. 특히 구술채록은 생산기록물 영역과 DA-Arts 기획컬렉션에 분산되어 나타나는데, 이는 해당 기록이 기관 사업으로 생산되는 동시에 디지털 매체 형태로 제공되어 두 영역에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ARCO 분류체계는 2가지 구조적 특징을 보인다. 첫째, 기록 접근은 건 단위 목록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설문원(2011)은 보존기록 정리 원칙으로 출처주의와 원질서에 기반한 컬렉션-시리즈-파일의 계층 구조와 집합적 기술 방식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국립예술자료원은 이러한 계층적 정리체계와 집합적 기술이 충분히 구축되지 않아 기록 접근이 사실상 건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2026년 플랫폼 개편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다. 둘째, 영역별로 출처주의, 사업 중심, 매체 유형 등 서로 다른 분류 원칙이 병행되는 구조를 보인다. 이러한 구조는 다양한 장르를 포괄하는 수집 특성과 기록물 유형의 이질성에서 형성되며, 일부는 외부 플랫폼과의 연계 과정에서도 영향을 받는다. 그 결과, 동일한 기록물이라도 분류 기준에 따라 서로 다른 체계에 배치되는 구조가 나타난다.

### 3.1.2 검색도구

ARCO의 검색도구는 메인 홈페이지와 DA-Arts 모두 통합검색을 중심으로 작동한다. 메인 홈페이지는 통합검색, 상세검색, 필터 기능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DA-Arts는 매체 유형별 카테고리 안에서 제한적으로 검색이 이루어진다.

메인 홈페이지에서 키워드를 입력하면 수집기록물과 생산기록물의 구분 없이 관련 기록이 건 단위로 제시된다. 검색 결과 화면에서는 생산년도, 자료구분, 소장기관, 소장위치, 매체유형 등의 필터가 제공된다. 또한 검색 이전에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상세검색 기능이 함께 지원된다. 개별 기록에 대한 기술 정보 역시 건 단위로 상세하게 제공된다. 이러한 기능은 이용자가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달리 DA-Arts에서는 분류 카테고리가 검색 방식과 직접적으로 연동된다. 예를 들어 기획컬렉션의 구술채록 탭에서 검색하면, 검색 범위가 해당 카테고리로 제한되어 구술채록 기록만 결과로 제시된다. 이는 분류 카테고리가 이용자의 탐색 경로를 사전에 제한하고, 그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기록의 범위를 규정하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DA-Arts에서 통합검색을 선택하면 메인 홈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포괄적인 탐색은 주로 메인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점에서 ARCO의 검색도구는 메인 홈페이지의 통합검색을 중심으로 두 플랫폼의 분리된 구조를 연결하며, 이용자에게 다양한 접근 경로를 제공한다. 다만 검색 결과가 건 단위로 제시되는 방식은 앞서 살펴본 분류체계

의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계층적 정리와 집합적 기술이 충분히 구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색도구는 분류 구조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 개별 기록 중심의 탐색 결과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검색도구가 운영되고 있으나, 두 플랫폼이 분리된 형태로 제공됨에 따라 이용자는 탐색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환경을 경험하게 된다.

### 3.1.3 이용자 서비스

ARCO의 이용자 서비스는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각 프로그램은 분류체계나 검색도구와 유기적으로 연계되 기보다 각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별도로 운영되는 방식으로 보인다.

첫째, 학술 DB 이용 프로그램이다. EBSCO Public 등 외부 DB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강의로 운영되며, 교육 종료 후 퀴즈를 통해 참여를 확인한다. 이 프로그램은 연구자와 예술인의 정보 접근을 지원하지만, 분류체계 구조 나 검색도구 활용 방식을 이해하도록 돕는 프로그램 성격은 아니다.

둘째, 아카이빙 실습 프로그램이다. <2025 예술가의 아카이빙 워크숍>은 신진 예술가를 대상으로 기록의 생성 과 활용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강연, 집담회, 촬영·편집, 디지털 도구 활용 등이 포함된다. 이 프로그램은 기록 생산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식으로 운영되나 ARCO의 분류체계나 검색도구 활용과는 연계되지 않는다.

셋째, 전시·감상형 기획 프로그램이다. <원 테이블>은 컬렉션을 중심으로 기록을 재구성하여 아카이브의 순환 과정을 보여준다. 「르네상스」는 특정 기증자 컬렉션을 다양한 매체와 결합하여 기록의 역사성과 감각적 경험을 전달한다. 두 프로그램은 기록을 전시 형식으로 재구성하여 이용자가 기록의 맥락과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한다.

이용자 서비스 프로그램은 외부 학술정보 매개(DB 교육), 기록 생산 경험(아카이빙 실습), 기록 해석(기획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가능성을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ARCO의 분류체계 및 검색도구와 연계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ARCO의 분류체계 및 검색도구와 연계되지 않은 채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시·교육·체험 등 이용자 서비스는 확대되고 있으나, 분류체계 및 검색도구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는 수준까지는 이어지지 못한다.

이상 분석을 종합하면, ARCO는 분류체계에서는 건 단위 접근과 영역별 분류 원칙이 확인되며, 검색도구는 이를 부분적으로 보완하지만, 분류체계의 구조적 제약을 완전히 상쇄하지는 못한다. 이용자 서비스는 외부 학술 정보 매개, 기록 생산 경험, 기록 해석이라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이용가능성을 확장한다. 다만 분류체계·검색 도구·이용자 서비스는 유기적으로 연결되기보다 각각의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경향으로 보인다. 이는 분류체계의 구조적 특성이 검색도구와 이용자 서비스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는 조건에서 비롯된다.

## 3.2 미국미술아카이브(Archives of American Art)

1954년 설립된 AAA는 스미스소니언 산하 기관으로, 1970년 공식 아카이브로 편입되었다. AAA는 미국 시각예술 기록을 역사적·문화적 맥락에서 보존·연구·공개하며, 기록 기반 학술 연구를 지원한다. 수집 대상은 예술가와 미술계 종사자의 서신, 일기, 스크랩북, 사진, 음성, 영상, 구술채록 등 다양한 유형의 1차 예술기록물이다. 특히 완성된 작품보다 창작과정과 예술 활동의 맥락을 보여주는 자료를 중심으로 수집한다.

단일 장르인 시각예술에 집중된 수집 범위는 분류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유리한 조건이다. 수집 구조를 바탕으로, 본 절에서는 분류체계·검색도구·이용자 서비스가 이용가능성 구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3.2.1 분류체계

AAA의 분류체계는 창작자 중심의 분류 논리가 전체 구조에 일관되게 적용된다. 특정 예술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컬렉션 안에 서신, 스크랩북, 사진, 음성, 영상 등 다양한 매체의 기록이 포함되며, 이들은 컬렉션-시리즈-하위시리즈-박스-폴더-아이템의 계층 구조로 배열된다. 「Jackson Pollock and Lee Krasner papers, circa 1914-1984」 컬렉션은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잭슨 폴록과 리 크래스너의 기록은 하나의 컬렉션으로 통합되어 관리되고 있다. 시리즈 1은 폴록의 기록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시리즈 2는 크래스너의 기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구조는 창작자의 생애 기록을 분류의 출발점으로 설정한 결과로, 두 창작자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각 기록의 출처를 반영하여 조직된 것이다. 또한 수집 당시의 원질서가 디지털 환경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표 3> 잭슨 폴록·크래스너 컬렉션 전체 계층 구성

계층		시리즈 1 (폴록 중심 기록)	시리즈 2 (크래스너 독립 기록)	관련 기록
컬렉션		Jackson Pollock and Lee Krasner papers, circa 1914 - 1984		
시리즈		폴록 본인 및 공동 기록	크래스너 독립	
하위 시리즈	①	생애 기록 (공동)		
	②	서신 (공동)		
	③	타인의 글	인터뷰 전사본	음성·영상 기록
	④	연구자료	타인의 글	음성·영상 기록
	⑤	비즈니스 기록 (공동)		
	⑥	인쇄물 (공동)		
	⑦	스크랩북 (공동)		
	⑧	타인의 작품	크래스너 본인의 글	
	⑨	사진 (공동)		
	⑩	음성·영상 기록	음성·영상 기록	인터뷰 전사본, 연구자료
배열 기준		마이크로필름 원배열 기반 (공동)		

AAA 분류체계의 특징은 다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창작자 출처를 기준으로 계층 구조가 조직된다. 폴록 중심 기록(시리즈 1)과 크래스너 기록(시리즈 2)은 창작자 기준으로 구분된다. 또한 공통으로 구성된 기록들이 여러 시리즈에 걸쳐 배치되면서 두 창작자의 관계 맥락이 구조 안에서 함께 드러난다.

둘째, 출처 원칙이 계층 전반에 일관되게 적용된다. 타인이 작성한 기록과 창작자가 직접 생산한 기록이 구분되며, 인터뷰 전사본과 타인의 글, 음성·영상 기록 등도 생산 주체에 따라 별도의 하위시리즈로 조직된다. 이러한 방식은 시리즈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셋째, 기록 간 관계가 분류 구조 안에서 함께 제시된다. <표 3>에서 확인되듯이 인터뷰 전사본, 음성·영상, 연구자료는 관련 기록으로 연계되어 원본-전사-분석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드러낸다. 또한 전시 카탈로그, 행정 기록, 연구자료 등 다양한 유형의 기록이 하나의 컬렉션 안에 함께 조직되면서 기록 간 맥락이 확장적으로 연결된다. 이를 통해 창작자의 개별 기록뿐 아니라 창작 맥락 전체를 함께 파악할 수 있다.

종합하면 AAA의 분류체계는 창작자 중심의 일관된 분류 논리가 전체 계층 구조에 적용되어, 기록의 출처와 생산 맥락을 유지하면서 기록 간 관계를 함께 드러내는 데 강점을 가진다. 다만 계층 구조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이용자가 전체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탐색 과정이 요구된다는 한계를 보인다.

### 3.2.2 검색도구

AAA의 검색도구는 분류체계에서 형성된 구조와 기록 간 관계를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분류 논리가 검색 결과에 직접 반영된다는 점이 핵심 특징이다. 이 과정에서 Finding Aid는 분류체계와 검색도구를 연결하는 핵심 매개로 기능한다. 이용자는 Finding Aid를 통해 기록에 접근하기 전에 컬렉션 전체의 계층 구조와 맥락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원하는 기록을 정확하게 탐색할 수 있다.

메인 화면에서 ‘책슨 폴록’을 검색하면 결과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컬렉션 검색(346건)이고, 다른 하나는 전체 검색(1,486건)이다. 컬렉션 검색은 컬렉션의 제목, 설명, 메타데이터를 대상으로 한다. 반면 전체 검색은 웹사이트 전체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다. 이처럼 검색 시스템이 두 단계로 분리 운용되는 구조는 이용자가 탐색 목적에 따라 접근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컬렉션 검색 결과는 컬렉션 유형, 인물, 직업, 토픽, 주제의 5가지 패킷으로 제시된다. 이 구조는 3가지 주요 탐색 방식을 제공한다.

첫째, 인물 네트워크 기반 탐색이다. 인물 탭에서는 폴록과 관련된 개인과 기관이 함께 제시된다. 직업 탭에서는 큐레이터, 교육자, 갤러리 소유자 등 사회적 역할에 따라 기록이 구분된다. Finding Aid 필터를 적용하면 폴록뿐 아니라 형 찰스 폴록, 동료 작가 알폰소 오소리오 등 관련 인물의 기록도 함께 나타난다. 이는 Finding Aid가 개별 기록을 넘어 창작자 간 관계 맥락을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함을 보여준다.

둘째, 미술사적 맥락 탐색이다. 토픽 탭에서는 추상표현주의, 미술의 경제적 측면, 수집 활동 등 미술사적 주제가 제시된다. 이는 창작자 중심 분류 위에 해석적 맥락이 추가된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생애 중심 탐색이다. 주제 탭에서는 예술가의 생애 기록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 이는 AAA가 생애 기록을 분류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구술채록은 음성 발췌본과 전사본으로 함께 제공되어, 동일 기록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AAA의 검색도구는 매체 유형별 접근 경로를 제공한다. ‘Explore the Collections’ 메뉴에서는 사진, 서신, 음성, 영상 등 매체별 탐색이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도 자료의 출처(컬렉션·시리즈)가 함께 제시되어 분류 구조의 맥락이 유지된다. 따라서 이용자는 창작자 중심의 계층 구조와 매체 유형 경로를 함께 활용하여 기록에 접근할 수 있다.

종합하면 AAA의 검색도구는 Finding Aid를 핵심 매개로 삼아 창작자 중심의 분류 구조를 이용자에게 전달한다. 인물 관계, 미술사적 맥락, 생애 기록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패킷 기반 탐색과 매체 유형별 접근 경로가 함께 제공된다. 이를 통해 동일한 기록이 여러 경로에서 탐색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분류체계에서 형성된 기록의 맥락과 관계가 검색 단계로 일관되게 이어지며, 이용가능성 구현을 뒷받침하는 특징으로 나타난다.

### 3.2.3 이용자 서비스

AAA의 이용자 서비스는 교육프로그램, 기획 콘텐츠, 이용자 참여형 활동으로 구성된다. 이들 서비스는 이용자가 기록을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첫째, 교육프로그램인 ‘1차 기록물 활용(Teaching with Primary Sources)’은 미술사 교육자를 대상으로 하며, 펠로우십을 제공한다. 참여자는 검색도구를 통해 디지털 컬렉션에 접근하고, 이를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 방법을 개발한다. 또한 스미스소니언 학습 플랫폼을 통해 관련 교육 자료를 제공받는다. 이 프로그램은 기록에 대한 단순 접근을 넘어 생산 맥락의 맥락적 해석과 교육적 활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용가능성의 심화 단계를 구현한다.

둘째, 기획 전시와 온라인 컬렉션 하이라이트이다. 2개의 프로그램은 분류체계가 조직한 기록의 맥락과 관계성을 이용자에게 직접 전달한다. 기획 전시 프로그램은 컬렉션 기반으로 구성되고, 온라인 컬렉션 하이라이트는 큐레이터가 특정 주제, 작가, 사건을 중심으로 관련 기록을 선별하여 스토리 형식으로 구현한다. 검색도구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기록 간 관계와 맥락을 큐레이션을 통해 직접 전달함으로써 이용가능성을 구현하는 방식이다.

셋째, 스미스소니언 디지털 기록 전사 프로그램이다. 자원봉사자가 디지털화된 기록을 직접 전사하여 키워드 검색을 가능하게 하는 참여형 활동으로, 이용자가 기록의 접근성을 높이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이다. 이 프로그램은 분류체계·검색도구·이용자 서비스가 이용자 참여를 통해 함께 작동하는 구조를 보여준다.

종합하면 AAA의 이용자 서비스는 분류체계와 검색도구를 기반으로 기록 활용을 단계적으로 확장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검색도구를 통해 접근한 기록을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는 단계를 지원한다. 기획 콘텐츠는 분류체계가 조직한 맥락을 큐레이션을 통해 이용자에게 직접 전달한다. 전사 프로그램은 이용자 참여를 통해 기록의 키워드 검색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교육프로그램과 기획 콘텐츠까지 활용 범위를 확장한다. 따라서 3가지의 특징은 접근·해석·참여의 순환 구조에서 이용가능성을 단계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AAA의 이용가능성은 분류체계·검색도구·이용자 서비스가 Finding Aid를 매개로 단계적으로 연결되는 구조 속에서 실현된다. 출처주의와 원질서 원칙에 기반한 창작자 중심의 분류 논리는 컬렉션 전체의 계층 구조를 일관되게 형성하며, 이를 바탕으로 Finding Aid 수립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Finding Aid는 이용자가 기록에 접근하기 전에 컬렉션 전체의 맥락과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고, 검색도구에서는 패킷과 필터를 통해 인물 관계·미술사적 맥락·생애 기록 등 다양한 탐색 경로로 확장된다. 이와 같은 구조 위에서 이용자 서비스는 교육·기획 콘텐츠·전사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록의 맥락적 해석과 활용을 심화한다. 결국 분류체계에서 출발한 일관된 논리가 Finding Aid를 거쳐 검색도구와 이용자 서비스로 이어지는 이 연결 구조가 AAA 이용가능성 실현의 핵심으로 작동한다.

### 3.3 프랑수국립도서관 공연예술부(Bibliothèque national de France)

BnF는 14~15세기 프랑스 왕실의 도서 수집에서 출발하여, 1537년 납본제도 도입을 계기로 국가 차원의 기록 수집 체계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프랑스대혁명을 거치며 국가 소유 기관으로 전환되었고, 오늘날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추게 되었다. 현재는 학문 분야별 분관 체계를 기반으로 국가 지식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다.

공연예술기록은 공연예술부(Département des Arts du spectacle)를 중심으로 관리된다. 이 부서는 연극, 무용, 서커스, 마임, 뮤지컬, 거리공연 등 다양한 공연예술 장르가 포괄하여 수집·보존한다. 영화, 음악, 오페라는 별도의 부서에서 관리된다. 이에 따라 공연예술부는 공연 행위를 중심으로 생산된 기록에 집중한다. BnF의 공연예술 기록 수집은 납본제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일정한 기준 아래 자료가 지속적으로 축적된다. 이러한 수집 체계를 바탕으로 BnF는 기능별로 특화된 4개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플랫폼은 기술 원칙과 이용자 대상에 따라 차별적으로 구성된다.

〈표 4〉 BnF 플랫폼의 구성 특성과 기능 비교

플랫폼	이용자 대상	유형	주요 기능
① archivesetmanuscrits	- 연구자 - 전문가	아카이브 시스템	- 아카이브·필사본 - 기록학적 계층 구조 - 출처주의·원질서 원칙
② catalogur.bnf.fr	- 연구자 - 사서 - 일반 이용자	도서관 목록 시스템	- 소장 자료
③ gallica.bnf.fr	- 연구자 - 일반 이용자	디지털 도서관 시스템	- 디지털 자료 - 온라인 열람
④ bnf.fr	- 일반 이용자	기관 대표 포털	- 기관 정보 안내

<표 4>에서 확인되듯이 각 플랫폼은 기능에 따라 분류체계와 자료 접근 방식이 다르게 구성된다. 본 절에서는 BnF의 분류체계를 4개 플랫폼별 분류 원칙, 파리·아비뇽 소장위치 이원화, 사건 단위 중심 조직 방식의 중심으로 분석한다.

### 3.3.1 분류체계

<표 5>는 BnF 각 플랫폼의 분류체계와 계층 구조를 정리한 것이다. 비교·분석을 위해 ‘아비뇽 축제(Festival d’Avignon)’를 키워드로 설정하였다. 이 키워드 사례는 생산기관, 생산자 개인, 자료 유형, 소장위치 등 다양한 분류 기준이 동시에 적용되는 복합적 구조를 보여준다.

<표 5> BnF 플랫폼별 분류 원칙과 구조

플랫폼	분류 원칙	계층구조	상위 구분 기준		하위 구분 기준
①	- 출처주의 - 원질서 존중 - 계층적 기술	풍-시리즈-도시에-피에스	소장위치	파리 아비뇽	- 예술 장르(18개) - 생산자명(알파벳순) - 생산기관
②	- 전자통제 방식 - 도서관 목록		기록물 형태 및 유형		- 주제, 저자, 언어, 날짜, 장르, 공연
③	- 이용자 접근성		온/오프 열람 방식		- 기록물 형태, 유형, 소장 기관, 주제, 언어
④	- 웹 콘텐츠				

#### ① 플랫폼(archivesetmanuscrits)

기록학적 분류 원칙이 명확하게 반영된 ① 플랫폼이다. 공연예술부가 작성한 소장 기록물 현황을 기반으로 출처주의와 원질서 원칙이 체계적으로 구현되며, 분류 구조는 풍-시리즈-도시에-피에스의 4단계 계층으로 이루어진다. 최상위 분류 기준은 소장위치(파리, 아비뇽)이다. 파리 소장 기록은 예술 장르와 자료 유형을 결합하여 조직되며, 각 장르 내부는 생산자 유형을 기준으로 세분된다. 예를 들어 연극 분류는 극작가, 연출가, 배우 등으로 구성되며, 각 하위 단위에서는 생산자명을 기준으로 알파벳순으로 배열된다. 아비뇽 소장 기록은 장르나 개인이 아닌 생산기관 단위로 풍이 구성된다. 아비뇽 축제가 하나의 기록 단위로 조직되며, 이 안에 연출가, 배우, 무대 디자이너 등 기록이 통합적으로 묶인다. 시리즈 구성은 예술감독의 재임 기간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기록 생산 맥락을 시간 단위로 구조화한다. 구체적인 구조는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6> “아비뇽 축제” 풍 내부 시리즈 구성

시리즈	참조코드	재임기간
Direction Jean Vilar	AMw-1	1947 - 1971
Direction Paul Puaux	ACOL-1	1971 - 1979
Direction Bernard Faivre d’Arcier	ACOL-2	1979 -1985 : 1992 - 2003
Direction Alain Crombecque	ACOL-3	1985 - 1992

동일한 풍 내에서는 참조코드가 AMw-1과 ACOL계열로 분리되는 것은 컬렉션 통합 이전의 분산 소장 이력을 반영한 것이다. 이처럼 하나의 풍이 복수의 참조코드로 관리되는 구조는 기록의 소장 이력을 분류체계 내에서 유지하는 출처주의 적용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인쇄 컬렉션(서적, 정기간행물, 프로그램, 트래트 등)과 도상 컬렉션(사진, 드로잉, 회화 등)은 ② 플랫폼에서 별도로 관리된다. 이는 자료 유형에 따라 플랫폼 간 분류

기준이 구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 ② 플랫폼(catalogue.bnf.fr)

전거 통제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전거 통제는 단체 전거, 동의어 표준화, 주제어 시소러스의 세 가지 방식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아비뇽 축제’는 공연예술 단체로 등록되어 영구식별자(ARK)가 부여되며, 다양한 검색어는 공식 명칭으로 통합된다. 또한 주제어 간 계층 관계가 구조적으로 관리되어 개념 간 연계가 가능하다.

#### ③ 플랫폼(Gallica)

디지털화 자료의 접근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열람 방식(온라인/오프라인)이 최상위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 때문에 기록학적 계층 구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비뇽 축제’를 키워드로 설정하고 공연예술 주제 필터를 적용하면 3건의 결과만 확인된다. 그러나 해당 자료는 스포츠 잡지와 이탈리아 신문 등 축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이는 ③ 플랫폼에서 예술기록이 공연예술 범주로 정확히 구분되지 않는 한계를 보여준다.

#### ④ 플랫폼(bnf.fr)

기관 대표 포털로서 웹콘텐츠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기록학적 분류 원칙보다는 이용자 접근성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BnF 분류체계의 특징은 기능에 따라 분류 방식이 나뉜다는 점이다. 기록학적 분류는 ① 플랫폼에서, 전거 통제는 ② 플랫폼에서, 디지털 자료 접근은 ③ 플랫폼에서 각각 담당한다. 공연 사건을 기준으로 기록을 묶는 방식은 ① 플랫폼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① 플랫폼의 아비뇽 자료는 오프라인 열람만 가능하며 온라인 예약은 제공되지 않는다. 또한 Direction Olivier Py(ACOL-10) 품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사례는 소장위치와 정리 여부에 따라 이용 범위가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3.3.2 검색도구

BnF의 4개 플랫폼은 서로 다른 검색 구조로 운영된다. 이 중 기록 검색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은 ①, ②, ③이며, ④는 기관 정보와 서비스 안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기록 단위 검색기능은 제공하지 않는다.

#### ① 플랫폼(archivesetmanuscrits)

검색도구는 통합검색, 상세검색, 컬렉션으로 구성된다. ‘아비뇽 축제’를 검색하면 397건의 결과가 확인되며 부서, 인물, 자료 유형, 언어, 주제, 디지털 자료, 장소, 날짜 등 8개 항목을 기준으로 결과를 좁힐 수 있다. 이 플랫폼의 핵심 특징은 계층 기반 탐색 기능이다. 개별 항목을 선택하면 좌측에 목차가 나타나며 이용자는 키워드 검색 없이도 품-시리즈-도시-에-피에스의 구조를 따라 직접 이동할 수 있다. Instrument de recherche(이하 IR, 인벤토리)는 PDF 형식으로 제공되며, 현재 계층 단위만 포함하는 방식과 하위 계층 전체를 포함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IR은 생산자 연혁, 범위와 내용, 접근 조건 등 국제표준 ISAD(G)에 기반한 메타데이터로 구성된다. 또한 ③ 플랫폼과 연계된 자료는 검색 결과에서 G 아이콘으로 표시된다. 다만 디지털 원본이 존재하더라도 저작권 문제로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 오프라인 열람만 가능하다.

#### ② 플랫폼(catalogue.bnf.fr)

도서관 목록 시스템으로 4개의 플랫폼 중 가장 다양한 검색기능을 제공한다. 통합검색, 상세검색, 저자 목록,

주제 목록, 정기간행물, 참조코드, 전거레코드, 주제별 전문 컬렉션 등 다양한 탐색 경로가 제공된다. ‘아비뇽 축제’를 검색하면 14,460건의 결과가 확인되며, 16개 필터를 통해 결과를 세분화할 수 있다. 상세검색에서는 공연 날짜를 년, 월, 일 단위로 입력하여 자료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4개의 플랫폼 중 공연 날짜를 기준으로 탐색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다. 이 플랫폼의 핵심은 전거 통제 기반 검색이다. 단체 전거를 통해 ‘아비뇽 축제’는 공연예술 단체로 등록되어 있다. 주제어는 시소러스를 통해 상위와 하위 관계로 관리된다. 다양한 표현은 공식 명칭으로 연결되도록 정리되어 있다. 또한 각 기록에는 영구식별자(ARK)가 부여된다. 이러한 구조에서 ② 플랫폼은 전거 통제를 중심으로 시소러스, 날짜 검색, 영구식별자를 결합하여 다양한 표현을 통합하면서도 기록을 시간과 주제에 따라 체계적으로 탐색할 수 있게 한다.

### ③ 플랫폼(Gallica)

디지털 자료 접근을 중심으로 설계된 검색 시스템이다. 검색 결과는 온라인 열람 가능 자료와 오프라인 자료로 구분되어 제시되며, 접근 조건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주제 기반 분류에는 한계가 나타난다. ‘아비뇽 축제’ 관련 자료가 공연예술이 아닌 언론·출판 범주로 분류되는 사례가 확인되며, 주제 검색만으로는 관련 자료를 정확히 찾기 어렵다. 이는 디지털 자료가 기록학적 분류 기준이 아니라 자료 유형과 열람 방식을 중심으로 조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큐레이션 기반 검색기능이 함께 제공된다. 검색어 입력하면 아키비스트가 사전에 선별한 관련 컬렉션이 제시된다. 또한 상세검색에서는 근접 검색과 지리 검색이 지원된다. 근접 검색은 두 검색어가 본문에서 함께 등장하는 범위를 설정하여 자료를 탐색하는 방식이며, 지리 검색은 특정 장소와 환경을 기준으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러한 기능은 4개 플랫폼 중 ③ 플랫폼에서만 제공된다. OCR 기반 전문 검색도 지원된다. 디지털 자료의 본문에서 검색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검색 결과에는 해당 내용이 미리보기 형태로 제시된다. 텍스트 인식이 가능한 자료는 별도 필터로 구분되며 약 6,930건이 확인된다. 개별 자료 열람 단계에서는 IIF 기반 디지털 뷰어가 적용된다. 또한 영구식별자(ARK)를 통해 ② 플랫폼과의 연계도 확인된다. 이러한 구조는 접근 조건을 중심으로 검색 구조를 구성하는 동시에 다양한 검색기능을 통해 분류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 ④ 플랫폼(bnf.fr)

기관 대표 포털로 기록물 검색기능은 제공하지 않는다. ‘아비뇽 축제’를 검색하면 웹 콘텐츠 66건이 제시된다. 기록 검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화면 하단에 6개 링크를 통해 이동하도록 안내되어 있다.

분석을 종합하면, BnF의 검색도구는 기능에 따라 분산된 구조이다. 기록학적 계층 탐색(① 플랫폼), 전거 통제 기반 정밀 검색(② 플랫폼), 디지털 자료 전문 검색과 지리 기반 탐색(③ 플랫폼)에서 구현된다. ① 플랫폼은 계층 구조와 IR을 통해 검색 결과를 기록 맥락 안에서 제시한다. ③ 플랫폼과는 G 아이콘을 통해 연계된다. ② 플랫폼의 날짜 기반 검색과 ③ 플랫폼의 큐레이션 기능은 분류체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탐색 경로를 보완한다. 다만 4개의 플랫폼을 통합하는 검색기능은 제공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용자는 단일 플랫폼에서 전체 기록에 접근하기 어렵고, 탐색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플랫폼을 선택해야 한다. BnF의 이용가능성은 이와 같은 분산된 플랫폼 구조 속에서 이용자의 선택과 경로 구성에 따라 실현되는 특징을 보인다.

## 3.3.3 이용자 서비스

BnF의 이용자 서비스는 디지털 자료 이용 안내, 현장 연구 보조, 교육프로그램, 공연아카이브 컬렉션 활용의 4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모든 이용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자료 청구 절차는 IR 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접근 조건과 절차는 각 기록의 ‘Conditions d'accès’ 항목에서 안내된다. 이는 이용자가 기록에 접근하기 위해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로, 접근 가능성이 조건에 의해 제한적으로 형성됨을

시사한다.

첫째, 디지털 자료 이용 안내이다. 교육 콘텐츠와 자료 접근 경로 안내로 구성된다. 교육 콘텐츠에서는 ③ 플랫폼(Gallica)의 이용 안내 영상 시리즈가 제공되며, 기본 검색, 복합 검색 전략, 자료 선별과 정리, 검색 결과 활용, 이미지 기반 지리 검색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구성은 이용자가 검색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료 접근 경로 안내는 큐레이션 패널을 통해 아키비스트가 선별한 컬렉션을 제시하며, 분류체계에서 직접 드러나지 않는 탐색 경로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공연예술 부문에서는 프랑스 페스티벌 관련 플랫폼을 하나의 탐색 경로로 제공한다.

둘째, 현장 연구 보조 서비스이다. 공연예술부서 직원이 연구자를 대상으로 직접 운영한다. 온라인 카탈로그 이용 안내, 미등록 자료 탐색, 연구 범위 설정 등이 포함된다. 이는 검색도구만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교육프로그램이다. 매년 학생과 연구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컬렉션과 서비스를 안내하며, 연극, 영화, 무용, 서커스 등 주제에 따라 구성된다. 참여 단체의 특성에 맞게 내용이 조정된다는 점에서 이용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제공된다.

넷째, 공연아카이브 컬렉션 활용 프로그램이다. Maison Jean Vilar의 상설 전시 《Les Clés du Festival》은 사진, 영상, 음향, 포스터, 서신, 무대장치 등 약 1,000점의 자료로 구성된다. 전시는 소장 자료를 기반으로 주제별로 구성된다. 참고문헌 목록과 자료 탐색 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 이와 함께 팟캐스트와 주제별 컬렉션도 운영한다. 팟캐스트는 20세기 프랑스 극장의 음향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이용자는 기록을 청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주제별 컬렉션은 아키비스트가 특정 주제를 기준으로 자료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무도회 의상, 배우 데뷔, 특정 예술가 등이 주요 주제로 제시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분류체계나 검색기능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기록 간 관계와 맥락을 이용자에게 직접 전달한다는 점에서 이용가능성의 심화 단계로 기능한다.

종합하면 BnF의 이용자 서비스는 연구 보조·교육·전시를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록의 탐색, 이해, 활용을 지원한다. 특히 분류체계와 검색도구만으로는 전달하기 어려운 기록의 맥락과 관계를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용가능성을 심화시킨다. 다만 이러한 프로그램은 분류체계·검색도구와 유기적으로 연결되 기보다 기능별 분산된 형태로 운영된다. 이는 4개 플랫폼의 기능별 분산 구조가 이용자 서비스 단계까지 이어지면서 기록의 조직·탐색·활용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로 나타난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BnF는 분류체계·검색도구·이용자 서비스 각 영역에서 충실한 기능을 구현하고 있다. ① IR 중심 플랫폼은 출처주의와 계층적 기술에 기반한 분류 구조를 토대로 작성된 Finding Aid를 공개함으로써 이용자가 기록에 접근하기 이전에 컬렉션 전체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한다. ②·③ 검색 및 서비스 플랫폼은 날짜, 근접, 지리, OCR 기반 검색 등 다양한 특화 기능을 제공하며, 이용자 서비스 또한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연구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① 플랫폼의 검색 결과가 G 아이콘을 통해 ③ 플랫폼으로 직접 연결되는 등 플랫폼 간 부분적 연계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은 4개 플랫폼에 분산되어 운영됨에 따라 분류체계·검색도구·이용자 서비스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보인다. ① 플랫폼의 IR이 제공하는 맥락 정보는 다른 플랫폼의 검색도구와 이용자 서비스로 직접 연계되지 않으며, 이용자는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플랫폼을 개별적으로 이용하게 된다. 또한 파리·아비뇽의 이중 소장위치 구조에서는 일부 자료가 오프라인 열람만 가능하거나 정리 미완료 상태로 남아 있어 자료별 이용 조건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구조적 분산은 BnF의 이용가능성 실현 방식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4. 분류체계 비교 · 분석과 이용가능성 유형화 모델

본 장에서는 앞선 장에서 수행한 기관별 분석을 바탕으로, 분류체계 유형의 차이가 이용가능성 구현 방식에 어떠한 구조적 차이를 발생시키는지 비교 · 분석한다. 이를 위해 분류체계 · 검색도구 · 이용자 서비스의 연계 구조를 중심으로 3기관을 재구성하여 검토하고, 이를 통해 이용가능성 형성의 구조적 요인을 도출하고 유형화하고자 한다.

### 4.1 3기관 분류체계 유형에 따른 이용가능성 구현 방식 비교 · 분석

본 절에서는 “우리 기관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보존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여 이용자 대상과 수집 범위의 차이가 분류체계 유형과 이용가능성 구현 방식에 어떠한 구조적 차이를 발생시키는지 비교 · 분석한다. 분석은 분류체계 · 검색도구 · 이용자 서비스의 연계 구조를 중심으로 수행한다. ARCO는 예술인, 연구자, 일반 이용자를 폭넓게 대상으로 하며, AAA는 미술사 연구자를 주요 이용자로 한다. BnF는 플랫폼별로 이용 대상을 분담하여 연구자부터 일반 이용자까지 포괄한다. 이러한 차이는 수집 대상, 분류 · 정리 방식, 기관 운영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조건으로 작용한다. 3기관의 분류체계 유형과 이용가능성 구현 방식의 비교는 <표 7>과 같다.

<표 7> 3기관의 분류체계 유형에 따른 이용가능성 구현 방식 비교

구분	분류체계 유형	이용가능성 구현 방식	이용가능성 결과
ARCO	혼합형 (출처주의, 사업중심, 매체 유형 혼재)	분류 기준이 영역별로 상이하게 적용	이용 흐름의 일관성 낮음
AAA	창작자 중심 일관형 (출처주의, 원질서 일관 적용)	계층 구조 기반 Finding Aid가 체계적으로 제공	이용 흐름의 단계적 심화
BnF	공연 사건 중심 계층형 (소장위치 이원화)	IR 기반 분류 구조와 기능별 플랫폼 분산 운영	플랫폼 분산으로 이용 흐름의 단절

분류체계 유형 측면에서 AAA는 창작자 중심의 단일 분류 논리가 컬렉션-시리즈-하위시리즈-박스-폴더-아이템의 계층 구조에 일관되게 적용된다. 시각예술로 수집 범위가 특화되어 있어 이러한 단일 분류 논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이 마련되어 있다. BnF는 공연 사건 중심의 분류 논리가 풍-시리즈-도시-피에스의 계층 구조에 일관되게 적용된다. 또한 공연예술 다장르를 수집하면서도 납본제도를 기반으로 공연 사건이라는 일관된 분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ARCO는 다장르를 수집 구조 속에서 출처주의 · 사업 중심 · 매체 유형 등 서로 다른 분류 기준이 영역별로 병행되며 단일한 분류 논리가 형성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보인다.

이러한 분류체계 유형의 차이는 분류 구조가 이용자에게 어떻게 제시되고 활용되는지를 결정하며, 이는 이용가능성 구현 방식의 차이로 이어진다. AAA는 계층 구조를 기반으로 Finding Aid가 체계적으로 제공되어 이용자가 기록에 접근하기 이전에 전체 맥락을 파악하고, 탐색이 단계적으로 심화하는 구조를 보인다. BnF는 분류 논리의 일관성이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기능이 여러 플랫폼에 분산되어 이용 흐름이 통합되지 못한다. ARCO는 분류 기준의 혼재로 인해 계층 구조가 일관되게 형성되지 못하고, 검색도구 또한 건별 목록 중심으로 작동하여 분류 구조가 탐색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AAA는 흐름이 단계적으로 심화하는 구조를 보이는 반면, BnF는 각 기능이 충실하게 구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분산 구조로 인해 이용 흐름이 단절되고, ARCO는 분류체계의 혼재로 인해 이용 흐름의 일관성이 낮게 나타난다. 이는 이용가능성의 차이가 단순한 기능의 유무가 아니라, 분류체계가 어떻게 조직되고 검색도구 및 이용자 서비스와 연결되는지에 따른 구조적 차이에 의해 결정됨을 보여준다. 특히 분류 논리의

일관성과 계층 구조의 안정성, 그리고 분류체계·검색도구·이용자 서비스 간 연계 수준이 이용가능성 형성의 핵심 요인으로 도출된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 4.2 이용가능성 유형화 요인 도출

4.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관별 차이는 수집 범위와 분류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며 이는 이용가능성 구현 방식의 구조를 규정하는 핵심 조건으로 작용한다. 2장에서 논한 바와 같이 예술기록물은 매체·기록화·맥락·장르의 4차원에서 다층적 구조를 가지며, 3기관의 분류 논리 차이는 이 구조에 대응하는 방식의 차이로 나타난다. AAA는 시각예술로 수집 범위가 명확하여 일관된 분류 논리 적용이 가능한 조건을 갖는다. BnF는 공연예술 다장르를 수집하면서도 공연 사건이라는 분류 원칙을 유지한다. 반면 ARCO는 다장르를 동시에 수집하면서 다양한 기준이 중첩되어 단일 분류 논리를 전체에 적용하기 어려운 구조를 보인다.

분류체계는 이용자의 탐색 경로와 맥락 이해 방식을 구조적으로 결정하며, 이러한 구조는 검색도구와 이용자 서비스의 형태로 구체화한다. 이러한 연결이 이용가능성 형성의 핵심 조건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가능성 형성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요인을 중심으로 3가지 기준을 도출하였다.

첫째, 분류 논리의 일관성이다. 4.1절의 비교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핵심 쟁점은 특정 원칙의 채택 여부가 아니라, 일관된 기준이 전체 구조에 유지되는가에 있다. 일관된 분류는 이용자에게 예측할 수 있는 탐색 경로를 제공한다. 반대로 비일관적 구조에서는 기록의 맥락을 파악하고 활용하기 어렵다.

둘째, 계층 구조의 확립이다. 출처주의와 원질서에 기반한 계층 구조가 형성될 때 이용자는 기록 전체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Finding Aid 작성을 가능하게 하며, 이용자가 기록에 접근하기 이전에 구조와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적 접근의 조건이 된다. 또한 계층 구조가 확립될수록 다양한 탐색 경로가 마련되고, 검색기능의 확장과 맥락적 활용으로 이어진다. 반대로 이 구조가 부재할 경우, 검색은 개별 목록 제시에 머물고 이용자 서비스 역시 안내 수준을 넘기 어렵다.

셋째, 3축 연계의 통합성이다. 이는 분류체계·검색도구·이용자 서비스가 하나의 구조로 연결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분류체계는 계층 구조를 통해 맥락을 보존하지만 접근 경로가 제한될 수 있다. 검색도구는 전거 통제를 통해 다양한 접근점을 제공하지만 맥락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다. 이용자 서비스는 이 두 차원을 매개하여 이용자의 실제 탐색을 지원한다. 이 3요소가 하나의 구조로 통합될 때 이용가능성은 단계적으로 심화한다. 반대로 분리되어 운영될 경우, 분류 논리가 일관되더라도 이용가능성은 제한된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 이상의 3가지 기준은 <표 8>과 같이 체계화된다.

<표 8> 이용가능성 유형화 요인

구분	요인 1	요인 2	요인 3
	분류 논리의 일관성	계층 구조의 확립	3축 연계의 통합성
진단 질문	수집 범위에 맞는 단일 분류 논리가 전체 구조에 일관되게 적용되는가?	컬렉션 단위의 계층 구조가 구현되어 Finding Aid가 작성·공개되는가?	분류체계, 검색도구, 이용자 서비스가 하나의 구조로 연결되는가?
이용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일관된 분류 논리는 예측 가능한 탐색 경로 형성함 → Finding Aid 수립 가능	계층 구조가 구현될 때, Finding Aid 작성 가능 → 맥락 파악 가능 → 탐색 경로 다양화 → 검색도구 확장으로 이어짐	분류체계·검색도구·이용자 서비스가 통합될 경우, 이용가능성이 심화함 → 계층 구조 기반 접근 가능 → 전거 통제를 통한 다양한 접근점 제공 → 두 방식의 구조적 결합 가능
	비일관 구조에서는 맥락 파악과 활용에 제약이 발생함	Finding Aid가 부재할 경우, 검색은 개별 기록 단위 제시에 머무름 → 맥락 접근성 제한됨	3축이 분리되어 운영될 경우 이용가능성은 제한적 수준에서 실현됨

이상의 세 가지 요인은 분류체계 유형에 따른 이용가능성의 차이를 설명하는 핵심 구조적 요인이며, 이들 요인의 결합 방식에 따라 이용가능성 유형이 체계적으로 구분된다.

### 4.3 예술기록물 이용가능성 유형화 모델

4.2에서 도출한 3가지 요인을 4.1의 3기관 분류체계 분석 결과에 적용한 결과, 예술기록물의 이용가능성은 원칙 분산형·계층 미확립형·사건 맥락 중심 일관형·생산자 중심 일관형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본 연구는 이를 이용가능성 유형화 모델로 도출하였다. 분류체계 유형이 달라지면 이용가능성이 실현되는 방식 또한 구조적으로 달라진다.

원칙 분산형은 수집 범위가 다장르에 걸쳐 있어 단일 분류 원칙을 전체 체계에 일관되게 적용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진다. 따라서 분류 논리는 일관성 없이 형성되며, 계층 구조의 확립과 Finding Aid 수립 역시 제한된다. 분류체계·검색도구·이용자 서비스가 각각 분리된 상태로 작동하면서 이용가능성은 낮은 수준에 머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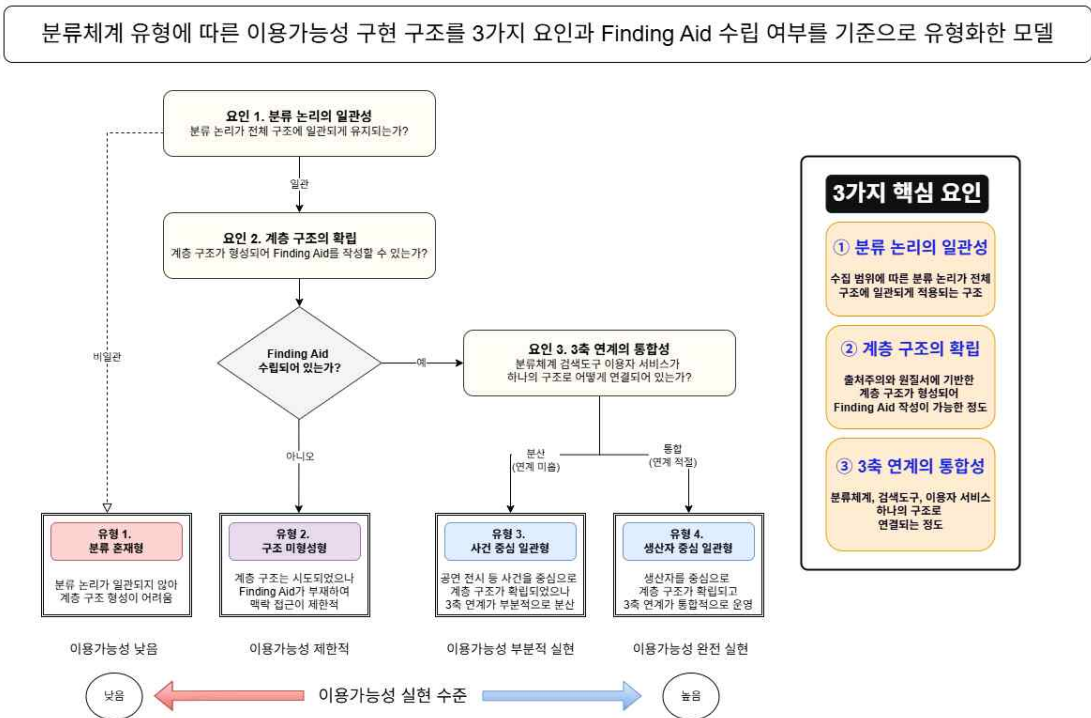
계층 미확립형은 분류 논리의 일관성은 확보되었으나, 해당 논리가 컬렉션 단위의 계층 구조로 구현되지 못한 구조를 가지며, Finding Aid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기록 접근 이전에 전체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고, 검색도구는 개별 기록 단위 제시에 머무르며, 이용자 서비스 또한 안내 수준을 넘기 어렵다. 분류 논리라는 조건은 갖추고 있으나 이용가능성의 실현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문다.

사건 맥락 중심 일관형은 BnF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공연 사건을 중심으로 한 일관된 분류 논리가 계층 구조로 구현되는 구조를 가지며, 개별 IR이 공개됨으로써 Finding Aid 기능이 마련된 유형이다. 그러나 기능별로 분산된 플랫폼 구조로 인해 분류체계·검색도구·이용자 서비스가 하나의 흐름으로 통합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용자는 개별 플랫폼을 분리하여 이용해야 하며, 이용가능성은 부분적으로 실현되는 수준에 머문다.

생산자 중심 일관형은 AAA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창작자 중심의 분류 논리가 계층 구조로 안정적으로 구현되는 구조를 가지며, 컬렉션별 Finding Aid가 체계적으로 제공되는 유형이다. 이용자는 기록 접근 이전에 전체 구조와 맥락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탐색 경로를 활용할 수 있다. 분류체계·검색도구·이용자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면서 이용가능성은 가장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다.

이상의 4가지 유형을 관통하는 핵심은 Finding Aid의 존재 여부가 이용가능성 실현의 1차 분기점으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분류 논리가 일관하더라도 Finding Aid가 구축되지 않을 경우, 계층 구조는 이용자의 탐색 과정을 반영하지 못한다. 그 결과 검색도구와 이용자 서비스 역시 분류 구조의 강점을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다. 반대로 Finding Aid가 구축된 유형에서는 분류체계·검색도구·이용자 서비스의 연계 통합성 수준에 따라 이용가능성이 단계적으로 심화한다.

분류 논리의 일관성은 계층 구조 형성의 조건이 되며, 계층 구조의 확립은 Finding Aid 수립을 가능하게 한다. Finding Aid는 분류 구조를 이용자의 탐색 과정에 연결하는 매개로 기능하며, 이후 분류체계·검색도구·이용자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연계될 때 이용가능성은 최종적으로 실현된다. 이러한 구조적 관계에서 이용가능성은 단계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으로 작동한다. 이는 본 연구가 제시하는 예술기록물 이용가능성 유형화 모델의 구조적 작동 원리를 설명한다. 분류 논리의 일관성·계층 구조의 확립·3축 연계의 통합성의 3가지 요인을 적용하여 유형별 이용가능성 실현 수준의 관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예술기록물 이용가능성 유형화 모델

## 5. 결론

본 연구는 ARCO, AAA, BnF 3기관의 비교·분석을 통해 예술기록물 분류체계의 유형이 이용가능성 실현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용가능성 유형화 모델을 제안하였다. 분석 결과 이용가능성은 분류체계·검색도구·이용자 서비스의 연계 구조 속에서 단계적으로 형성되며 이 과정에서 Finding Aid의 존재 여부가 핵심 분기점으로 작용한다.

3기관의 분류체계는 수집 범위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구성된다. ARCO는 다장르를 동시에 수집하는 구조로 인해 출처주, 사업 중심, 매체 유형이 혼재된 분류 방식을 보인다. AAA는 창작자 1차 기록물 중심의 분류 논리를 전체 체계에 적용한다. BnF는 납본제도를 기반으로 공연 사건 중심의 계층 구조와 소장위치에 따른 분류를 함께 적용한다. 이러한 차이는 기관의 운영 방식의 결과보다는 수집 구조에서 비롯되는 조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분류 논리의 일관성·계층 구조의 확립·3축(분류체계·검색도구·이용자 서비스)연계 통합성이라는 3가지 요인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용가능성을 원칙 분산형·계층 미확립형·사건 맥락 중심 일관형·생산자 중심 일관형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유형에 따라 이용가능성이 실현되는 방식과 수준은 구조적으로 달라지며 이용가능성 향상의 출발점은 검색 인터페이스의 개선보다 분류체계의 일관성 확보와 Finding Aid 수립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술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분류체계·검색도구·이용자 서비스의 3축 분석 틀을 통해 예술기록물 이용가능성의 구조적 형성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4가지 유형을 도출함으로써 기존 기록학 논의에서 충분

히 다루어지지 않았던 예술기록의 이용가능성 형성 양상을 이론적으로 확장하였다.

둘째, 실천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다. 유형화 모델은 예술기록기관이 기관 분류체계를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설정하는 분석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ARCO 사례 분석은 분류 원칙 병행 구조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며 향후 분류체계 개편 및 통합 플랫폼 설계 시 분류 논리의 일관성 확보, 계층 구조 안정화, 3축 연계 통합이 핵심 과제임을 시사한다. 또한 유형화 모델은 신규 예술기록기관 또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 시 분류체계 설계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는 3기관을 대상으로 이질적 사례 간 구조 비교를 수행하였으며 기관 간 국가, 소속, 법적 위상의 차이로 인해 운영 양상의 차이를 분류 논리의 차이로만 설명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분석 기준을 분류체계·검색도구·이용자 서비스의 3축으로 한정하고 기관별 맥락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였다. 따라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유형화 모델을 다양한 국가적 맥락의 예술기록 전문기관에 적용함으로써 적용 범위와 일반화 가능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류체계·검색도구·이용자 서비스의 3축 외에 정책 환경, 예산 구조, 인력 구성 등 추가 변수를 함께 고려하여 이용가능성 형성 요인을 더욱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후속 연구는 본 연구의 유형화 모델을 예술기록 이용가능성 분석의 이론적 기반으로 확장한다.

## 참고문헌

- 국가기술표준원 (2021). 문헌정보-기록관리-제1부: 개념과 원칙(KS X ISO 15489-1:2016).
- 김지아 (2022). 예술기록에 관한 분류·기술 사례 연구: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74, 79-117.  
<https://doi.org/10.20923/KJAS.2022.74.079>
- 문화체육관광부 (2024). 2024년 문화 디지털혁신 시행계획.  
[https://www.mcst.go.kr/site/s\\_policy/dept/deptView.jsp?pSeq=1886&pDataCD=0417000000&pType](https://www.mcst.go.kr/site/s_policy/dept/deptView.jsp?pSeq=1886&pDataCD=0417000000&pType)
- 박정연, 김수정 (2025). 무용 전공자의 무용기록물 인식, 탐색 및 활용 형태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5(4), 47-69.  
<https://doi.org/10.14404/JKSARM.2025.25.4.047>
- 설문원 (2010). 기록 검색도구의 발전과 전망. 기록학연구, 23, 3-43. <https://doi.org/10.20923/KJAS.2010.23.003>
- 설문원 (2012). 기록분류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3), 203-232.  
<https://doi.org/10.14404/JKSARM.2012.12.3.203>
- 설문원 (2021). 예술기록의 분류와 정리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2), 217-247.  
<https://doi.org/10.14404/JKSARM.2011.11.2.217>
- 조민지 (2011). 기억의 재현과 기록 기술 담론의 새로운 방향. 기록학연구, 27, 89-118.  
<https://doi.org/10.20923/KJAS.2011.27.089>
- Bowker, G. C., & Star, S. L. (1999). *Sorting things out: Classification and its consequences*. MIT Press.  
<https://doi.org/10.7551/mitpress/6352.001.0001>
-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2000). *ISAD(G): General International Standard Archival Description (2nd ed.)*.  
[https://www.ica.org/app/uploads/2024/01/CBPS\\_2000\\_Guidelines\\_ISADG\\_Second-edition\\_EN.pdf](https://www.ica.org/app/uploads/2024/01/CBPS_2000_Guidelines_ISADG_Second-edition_EN.pdf)
- Pearce-Moses, R. (2005). *A glossary of archival and records terminology*.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 Yakel, E. (2003). Archival representation. *Archival Science*, 3(1), 1-25. <https://doi.org/10.1007/BF02438926>
- Yakel, E. (2004). Encoded archival description: Are finding aids boundary spanners or barriers for users?. *Journal of Archival Organization*, 2(1-2), 63-77. [https://doi.org/10.1300/J201v02n01\\_06](https://doi.org/10.1300/J201v02n01_06)
- Yakel, E., & Torres, D. A. (2003). AI: Archival intelligence and user expertise. *American Archivist*, 66(1), 51-78.  
<https://doi.org/10.17723/aarc.66.1.q022h85pn51n5800>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 Min-Ji (2011). The representation of memory and new directions in archival description discourse.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27, 89-118. <https://doi.org/10.20923/KJAS.2011.27.089>
- Kim, Jiae (2022). A case study on classification and description of art archives: Focusing on the Seoul Museum of Art Archive.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74, 79-117. <https://doi.org/10.20923/KJAS.2022.74.079>
-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2021).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Records management - Part 1: Concepts and principles (KS X ISO 15489-1:2016).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4). 2024 Cultural Digital Innovation Implementation Plan. [https://www.mcst.go.kr/site/s\\_policy/dept/deptView.jsp?pSeq=1886&pDataCD=0417000000&pType](https://www.mcst.go.kr/site/s_policy/dept/deptView.jsp?pSeq=1886&pDataCD=0417000000&pType)
- Park, Jeong-Yeon & Kim, Su-Jeong (2025). A study on dance majors' perception, exploration, and use of dance record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25(4), 47-69. <https://doi.org/10.14404/JKSARM.2025.25.4.047>
- Seol, Moon-Won (2010). The development and prospects of archival finding aid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23, 3-43. <https://doi.org/10.20923/KJAS.2010.23.003>
- Seol, Moon-Won (2012). Research trends and issues in archival classification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2(3), 203-232. <https://doi.org/10.14404/JKSARM.2012.12.3.203>
- Seol, Moon-Won (2021).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and arrangement of art record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1(2), 217-247. <https://doi.org/10.14404/JKSARM.2020.11.2.217>